전남, 지역 민·관 공헌활동 확산… “사회책임 실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인정기업 18곳
생활밀착·사회적 약자 보호·지역 문제 해결 등
8월14일까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참가 신청

전남지역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되면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문제 해결이 빨라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한전 제공

전남지역에서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되며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뿌리내리고 있다.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후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총 18곳(202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달한다. 이는 2019년 8개소에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인정기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역본부 △한전MCS △한국농어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한전KDN △전남개발공사 △순천신용협동조합 △여수제일신협 △벌교신협 △굴비골농협 △서영암농협 △산정새마을금고 △광양시새마을금고 △마술여행㈜ △재원산업㈜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사례는 한수원 한빛원전의 ‘옥당골 행복만들기’ 프로그램이다. 2006년부터 이어온 이 사업은 영광군 10개 읍·면 120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족욕, 안마, 이미용, 노래교실, 점심 제공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연 1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연간 4300여 시간의 자원봉사가 이뤄지며,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

한전은 2003년부터 ‘사랑의 에너지 나눔’을 통해 전남 에너지빈곤층에 전기요금과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4만여 가구에 약 49억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3만7000여 가구에 817만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특히 전남 고지대 어르신 가구에 임직원이 직접 연탄을 나르는 참여형 공헌활동으로 지역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한전MCS는 ‘영원한 감동펀드’를 통해 한국전쟁 UN참전국 용사와 후손에게 주택 보수, 생활지원, 기술교육, 장학금 등을 제공하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재생과 귀농·귀촌 활성화, 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청소년 진로탐색, 장학사업,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으며,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행복나눔 봉사대’를 중심으로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필수품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KDN은 ICT 기반 교육과 농어촌 정보화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한전MCS의 캄보디아 교복전달식. 한전MCS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7월부터 8월 14일까지 제7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온라인 플랫폼(https://crckorea.kr/csrcommunity)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기업과 기관들의 노력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전남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 제7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전국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2019년부터 도입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인정하는 제도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장흥군, ‘상습 침수’ 회진항 정비에 343억 투입

전라남도 장흥군이 343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국가어항인 회진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회진항 정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이달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회진항은 그동안 방파제, 물양장 등 주요 어항시설의 노후화와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와 안전에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기존 시설물 보강과 더불어 항만 구조물의 증고를 통해 재해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회진항 정비사업은 방파제 보강, 접안시설 확충, 물양장 개선 등 항만 기반의 전면적인 개편이 핵심으로,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구조물 안전성과 기능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군, 27일 드론쇼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전라남도 고흥군이 오는 27일 오후 8시 고흥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세번째 ‘2025 고흥읍 드론쇼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1부에는 남녀노소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 백승민이 출연해 다양한 트로트 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기타리스트 주권기와 수준급 색소폰 연주자 최거룡이 포크송부터 대중가요까지 아우르는 라이브 듀엣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군민과 하나 되는 별밤 버스킹’을 주제로 고흥군청 앞 광장에서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8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시, 여름철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

전라남도 순천시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인근 업소들이다. 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김밥, 슬러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품목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전라좌수영 둑제’ 해외홍보 영상 공모 선정

제작비 4700만원 확보

전라남도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25 지역 연계 해외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공모사업’에 ‘전라좌수영 둑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제작비 4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축제, 관광명소, 음식, 산업, 인물 등과 관련한 홍보 영상콘텐츠를 3개 국어로 제작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전라좌수영 둑제’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등 해외 채널은 물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여수시 ‘전라좌수영 둑제’ 모습. 여수시 제공

‘전라좌수영 둑제’는 조선시대 군대 출정 시 군중의 앞에 세우는 둑기(纛旗)에 드리는 제사로, 지난 2007년 정부 전통예술 재현 복원사업 1호로 선정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가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돼 뜻깊다”며 “해외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여수의 역사와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국제 인지도 제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 하굿둑 개방·해수 유통’ 촉구

창립 28주년 맞춰 성명

전라남도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4일 하굿둑 개방과 해수 유통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창립 28주년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영산강이 오염되면서 치명적인 녹조 독소로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남도는 하굿둑 개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단체와 지역민들의 노력에도 영산강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도 녹조 및 수질 독소 모니터링과 환경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영산강과 바다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 하굿둑은 농업용수 공급과 간척지 개발, 교통 연결 등을 위해 1981년 완공됐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기능은 약화됐고 거대한 콘크리트 둑으로 물길이 막혀 수질 악화와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생태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환경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낙동강 하굿둑(1987년 완공)의 경우 2022년 수문 1개가 상시 개방된 뒤 하구 생태계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새 정부는 신속히 재자연화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1997년 6월 창립됐으며 지역 환경 감시, 골재채취 반대, 수질 실태 조사, 영산강살리기 캠페인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신안=정기찬 기자